한여름 밤의 꿈, 大入制度 유감

崔　　暎
(梨花女大 英語英文學科)

지난 십여 년간 우리의 大學 入試制度는 온갖 문제를 낳고 있는데도 끄떡없이 건재해 오고 있다.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개혁안 또한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입시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는 없는 것일까.

현행의 객관식 위주 입시문제가 제기하는 고등학교 교육의 파행성과 그로 인한 다양한 폐단들이 학부형과 고교와 대학의 선생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거듭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惡循環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다. 수십만의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질곡을 헤매고 있는데, 이들의 문제를 풀어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어른들은 실제로 이들이 겪는 경험을 생전 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양, 좀체로 자신들의 문제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실제로 대학 입시를 치르는 날 하루의 그 악몽 같은 경험을 잊지 않는다면, 벌써 무슨 해결방안이 나왔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마다 되풀이하면서도 우리는 마치 무슨 제사 치르듯 그날 하루를 무사히 보내면 그만이라는 듯이 지내오지는 않았던가. 물론 입시날을 전후해서는 입시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온갖 건의들이 쏟아지고, 이 제도에 대한 불만과 회의와 탄식이 이어지다가도 며칠 지나면 다시 일년이라는 時限的 忘却의 늪에 빠지고 만다.

입시날 여기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이날 하루 겪는 일을 필름을 되돌려 다시 천천히 본다면, 이것이 결코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제아무리 명분이 그럴 듯하다 해도 그것의 실시방안이 비정상적일 때, 그 명분은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날의 행사는 일년 중 대개는 가장 추운날 행해진다는 특색을 지닌다. 입시생과 그 가족, 입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무슨 특공대 작전에 투입되듯이 꼭두 새벽부터 긴장해서 입시장이라는 전투장으로 나간다. 동트기 전의 어두컴컴한 교정에는 학생 한 사람에 적어도 두 명씩의 부형들이 호위해서 한 보따리의 짐을 지고 모여든다. 점심 도시락에 방석에 때로는 무릎을 덮는 담요를 가지고 등장하기도 한다. 시험장의 난방 상태를 확인할 수 없으니 그럴 수밖에는 없지 않는가. 대개의 경우, 학교는 이날만은 스팀을 과잉으로 공급한다. 시험 치를 좌석의 배치 또한 그날의 입시 경기에서 중요한 몫을 한다. 혹시 뜨거운 스팀 옆에 앉게 되거나 반대로 바람이 스며드는 추운 창

가에라도 앉게 되면 그날의 신체와 두뇌 기능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 말이다.

입시날 하루를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학교당국이 투자하는 시간과 인력과 돈은 또한 얼마인가. 그러나 정작 시험문제들을 앞에 놓고 보면 과연 지난 수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해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일게 된다. 입시를 치르고 나서 정말로 뿌듯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조금만 더 시야를 넓히거나 귀동냥을 한다면 우리는 입시생들이 겪는 지옥훈련과 같은 수험준비 과정을 쉽게 알게 된다. 제삼자들은 아주 쉽게 그 지옥훈련의 의미없음을 논하지만 당사자나 부모, 선생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데 바로 입시제도의 悲劇性이 있다. 단 한 번의 시험이 인생을 좌우하는 식이 바로 우리가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범국가적인 대사업이 아닌가.

그리하여 우리의 희망이요, 장래의 주역을 키운다는 미명하에 우리는 청소년들을 제도화된 틀 속에 뚜들겨 맞추는 데 전심전력하게 된다. 이때 조금이라도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거나 지옥훈련에 대해서 회의를 품게 되거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지닌 학생이라면, 바로 이 뚜들겨 맞추기 훈련의 낙오생이 되기 십상이다. 이 훈련이 요구하는 것은 오로지 목적을 향해서 일말의 회의나 후회나 주저함이 없이 매진하는 로봇형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장애물 경주를 돌파해서 대학에 들어온 인재들은 그러나 실제로는 또 어떠한가. 이들은 4년후 졸업이 절대 보장되는 여건에서 학문에 돌입해야 될 당위성을 찾지 못한 채 대부분의 경우 선택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대학이라는 이름과 그 실제의 괴리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럭저럭 4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다. 취직시험이 강의에 우선하고, 도서관에서 보내야 될 시간들이 쉽게 벌리는 과외지도로 대치되며, 교과과정의 허술함이 때로는 지하서클의 독서 모임이나 곁가지로 흘러가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 大學의 自畵像이 아닌가.

지옥훈련을 어쨌든지 성공적으로 마치고 들어온 학생들은 무엇인가 그 노력에 걸맞는 보상을 원하며, 그 훈련을 의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실체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또 무엇을 주고 있는가.

대학은 학문의 전수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식의 편린들을 나누어 주거나, 안일과 나태의 모습으로 학문의 실체에 접하려는 의욕과 희망을 애초부터 좌절시켜 놓지는 않았는가를 심각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실상이 비록 적나나하게 알려진다 해도 오늘 우리 사회에서 大學 卒業狀이 지니는 그 명목상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졸업장을 지닌 사람들은 은연중에 대학의 가치를 平價切上하는 데 기여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학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그 존재가치가 지속되려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교과과정의 적합성, 교수과정의 엄격성, 능력테스트의 적절성 등의 엄격한 學事管理를 통해서 그 位相을 높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입학이 곧 졸업으로 이어지고 또 그 졸업장은 사회에서의 旣得權을 유지하거나 새로이 身分上昇을 위한 적절한 도구로 유용되도록 방치하는 상황에서는 더욱이 졸업생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상품의 질을 유지·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만큼도 대학졸업생들의 質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 아닌가.

대학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함께 大學入學의 機會는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잔인할 정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졸업을 손쉽게

시키는 것보다 입학은 쉽게 하고 그 대신에 卒業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가능케 하는 식으로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입학 정원제도의 유연성 있는 운용과 입학시험 치르는 시기의 자율화로 학생의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대학에 시차를 두고서 입학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대학당국도 연말에 입시 업무에 쫓기기보다는 가을부터 입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入學試驗의 自律化——선발 양식과 시기에 있어서의——와 함께 입학한 학생에게는 轉科의 자유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일단 들어오면 그 선택이 4년을 좌우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인력의 낭비가 되기 쉽다. 1, 2학년 동안 여러 과목들을 두루 섭렵해 가다가 3학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진정한 적성을 발견하게 한다거나 어느 때라도 자신의 이상에 근접한 학문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로 학문의 자유를 지키고 키우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지금과 같이 단 한 번의 결정이 대학생활 전체를 좌우한다면, 그 결정에 대한 회의가 오거나 변화가 왔을 때 달리 궤도를 수정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막혀 있다. 적성에 맞지 않는 학문에 열정을 느낄 리 없고 불만과 실의, 좌절의 시간을 보내게 방치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적 자원의 낭비가 아닌가. 고급 두뇌집단을 키우고 유지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진되어야 하며,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학문의 자유와 사고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대학, 곧 大學의 自律性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의 대학은 그 문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서는 그 안이 참으로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곳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일단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실망과 회의를 느끼면서도 대학 졸업장이 이 사회에서 발휘하는 부가가치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 때로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대학은 그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서 그 비판을 수용하여 개선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결국 4년간 머무르는 동안 불만을 지닌 채로 지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대학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열정을 식히기 위해서는 大學의 實情을 올바로 알리고 大學의 本質을 제대로 알려서 대학 졸업장이 사회에서의 신분보장이나 신분상승의 열쇠가 된다는 통념을 교정해야 한다. 또한 대학이 취업 전문기관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 기능을 전담하는 專門大學의 위상을 올바로 정립해 주어야 한다.

대학의 울타리를 낮추고 밖으로부터의 批判을 수용하면서 그 이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대학은 진정한 발전을 이루게 된다. 그것은 곧 대학이 열려진 사회가 되어야 하며 대학의 기능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알려져야 되고, 대학의 질이 엄격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大學 入試에 따른 副作用의 많은 부분들은 대학의 졸업 여부가 사회에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데 있다. 대학을 다니지 않았어도 대학졸업생 못지 않은 능력과 잠재력을 지닌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대단히 좁기 때문에 대학에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사회 구성원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배출구는 대단히 적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회에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은 과거지향적이고 전통을 고수하는 보수적 성향이 우세한 데 반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고를 하는 집단이라는 데서 야기되는 괴리 현상이 곧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기성세대에게는 청소년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대학입시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수험생이 된다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자녀들에게 온갖 과외와 보충수업을 강요하는 학부모 자신이 수험생이 된다면 과연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식의 장래를 철저히 보장하려 한다는 幻想 속에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는 苦行을 시키고 또 적극 강요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 결전의 시간에 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야 할 시험문제들은 과연 이들의 처절한 노력의 측정에 알맞은 것인가. 입시채점을 하다 보면 어이없어지는 문제들과 만나게 되고, 그럴 때면 공연히 울분을 삭일 수 없게 된다.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 노릇들인가!

매년 느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반복되는 연례적인 擧國的 축제(?)가 언제 끝장나고,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 망령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가운데 그들의 앞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들이 선택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인가. ☛